

초등학교 1학년 8단원 국어 정답 및 해설

※ 국어영역 ※

정답

01	⑤	02	②	03	①	04	⑤	05	②
06	④	07	④	08	①	09	③	10	④
11	①	12	④	13	②	14	④	15	⑤
16	③	17	②	18	②	19	①	20	③
21	③	22	①	23	⑤	24	②	25	③

해설

1.
⑤ 글을 읽을 때는 문장 부호에 맞게 띄어 읽어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, 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.

2.
② 문장 부호 ‘.’는 마침표이다. 마침표는 설명하는 문장 끝에 쓰는 문장 부호이다.

3.
①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쓰는 문장 부호는 쉼표(,)이다.
동생을 부를 때 ‘동생아, ~’와 같이 사용한다.

4.
⑤ ∨는 문장 부호가 아니라 띄어 읽는 방법을 나타내는 기호이다.

[오답풀이]

- ① ? : 물음표
- ② . : 마침표
- ③ ! : 느낌표
- ④ , : 쉼표

5.
② 쉼표(,) 뒤에는 ∨를 하고 조금 쉬어 읽고, 마침표(.), 느낌표(!), 물음표(?) 뒤에는 ∨를 하고 ∨보다

조금 더 쉬어 읽는다.

따라서 현수의 말은 ‘아! ∨이가 아파요. ∨’와 같이 띄어 읽어야 한다.

6.

④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서 잠을 자라는 의미여야 한다. 바르게 띄어 말한 것은 ‘어서 들어가, 자.’이다.

[오답풀이]

- ①, ②, ③ 띄어 읽기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.
- ⑤ 무언가를 얼른 들고 가자는 의미이다.

7.

④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고 싶어 덤벼들려고 하자 누렁소들은 힘을 합쳐 함께 뿔을 들이밀어 호랑이를 물리쳤다.

8.

① 누렁소들은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쳤으므로 기뻐한 것이다.

9.

③ 좋아!에 들어 있는 문장 부호는 느낌표(!)이다. 느낌표는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 끝에 쓰는 문장 부호이다.

10.

④ 바르게 띄어 읽은 것은 ‘소 세 마리는 한데 모였지요. ∨’이다.

[오답풀이]

- ① 좋아! ∨
- ② 아이코, ∨ 아이코! ∨
- ③ 우리, ∨ 힘을 합칠까? ∨
- ⑤ 어느 날, ∨ 호랑이가 덤벼들려고 하였어요. ∨

11.

① 수민이가 태희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므로 물음표(?)가 알맞은 문장 부호이다.

12.

④ 현수는 민지에게 ‘초롱이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

올래?’라고 말하며 민지와 초롱이를 집에 초대하고 있다.

13.

② 느낌표(!)를 사용하면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. 따라서 ㉠에 들어갈 문장 부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느낌표(!)이다.

문장의 끝이므로 마침표(.)를 사용할 수도 있다.

14.

④ 현수는 ‘놀러 올래?’라고 말하며 민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. 묻는 문장 끝에 쓰는 문장 부호는 물음표로, ㉡에 쓰인 문장 부호는 물음표(?)이다.

15.

⑤ 바르게 띄어 읽은 것은 ‘민지야, 안녕?’이다.

16.

③ 희철이는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여 말을 하고 있다. ‘큰일이 났어.’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물음표를 사용해서 오히려 영민이에게 큰일이 났느냐고 묻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. 희철이와 영민이가 바르게 대화를 할 수 없는 까닭은 희철이가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여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.

‘큰일 났어.’ 또는 ‘큰일 났어!’라고 말해야 한다.

17.

②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, 느낌표(!)가 와야 한다.

18.

② ‘싫어, 누나 것도 있잖아.’라고 띄어 읽어야 한다. ①, ③, ④, ⑤의 빈칸에는 표시를 해야 하므로, ②의 빈칸에 들어갈 띄어 읽기 표시만 다르다.

[오답풀이]

① 새 크레파스를 사서 기분이 좋아요.

③ 네 이름은 민정이구나. 반가워!

④ 나한테 왜 그래?

⑤ 놀러 가게 되어서 정말 즐거워!

19.

① ‘임금님은 몸이 똥똥해져서 걱정이 되셨지요’라는 부분에서 몸이 똥똥해져서 걱정임을 알 수 있다.

20.

③ 몸이 똥똥해져 걱정인 임금에게 왕비가 일찍 일어나

운동을 해 보라고 했고, 임금은 왕비의 말대로 운동을 하면서 고민을 해결했다.

21.

③ 물음표는 묻는 문장의 끝에 써야 하므로, ‘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까’라는 문장에 들어가야 한다. ‘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까?’라고 써야 한다.

22.

① 양치기 소년은 매일 양떼를 돌보다가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로 했다.

23.

⑤ ‘아, 심심해.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? ’라고 띄어 읽어야 한다.

24.

② 늑대가 나타나 놀란 듯이 표현해야 하므로, 느낌표(!)를 넣어 읽어야 한다.

25.

③ 마을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듯 소년을 바라봤으므로, ‘황당하다’가 알맞다.